

5월 1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 본문 말씀: 민수기 17:5~8 (5월 1일 본문)

■ 포인트: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워 그분 뜻 안에서 공동체를 질서 있게 이끌게 하세요.

≡ 1. 기도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지혜와 용기를 얻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세요.

≡ 2. 찬양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 3. 말씀

민수기 17:5~8을 함께 읽습니다. (말씀을 3번 읽으세요)

*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반복해서 읽으면 내용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역개정판 성경>

5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6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열둘이라 그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7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8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우리말 성경>

5 내가 선택하는 사람의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내 앞에서 *잠잠하게 할 것이다." 6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을 하자 그들의 지도자들이 각 지파의 지도자마다 한 개씩 총 12개의 지팡이를 모세에게 가져왔는데 아론의 지팡이도 그 지팡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7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막 안의 여호와 앞에 두었습니다. 8 이튿날 모세가 증거막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레위 집안을 대표하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터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아몬드가 열려 있었습니다.

≡ 본문 이해

아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예요. 하나님은 이를 백성 앞에 확증해 주셨어요. 열두 지파 지도자 이름을 쓴 열두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두었는데, 레위 지파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썼어요. 다음 날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트고 열매가 맺혔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해요.

□ 인도자를 위한 본문 이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렸어요. 급기야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레위 지파의 고라,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합세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모세와 아론이 공동체를 대표해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을 시기한 거예요. 권력에 욕심을 품었던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들을 무섭게 심판하셨어요. 땅이 갈라져 반역의 주동자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삼켜 버렸지요. 하나님은 그분이 선택하시고 세우신 제사장이 누구인지 확증해 주셨어요. 지파별로 지팡이에 대표자 이름을 쓰게 하고, 레위 지파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하셨어요. 지팡이들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증거궤 앞에 두었는데, 이튿날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잎과 꽃이 피어나 살구(아몬드) 열매가 열렸어요. 하나님은 아론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분명히 확인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말씀하시며 일하시는 분이예요.

≡ 4. 나눔

1) 하나님은 열두 지팡이 중 누구의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이라고 하셨나요? 실제로 누구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나요?(5, 8절)

■ 저학년

열두 개의 지팡이 중 싹이 난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였으며 어떤 뜻이 담겨 있나요?(5, 8절)

■ 유아·유치

하나님이 택하셔서 싹이 난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였나요?(8절)

□ 질문 가이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5절 전반부에서 찾고, 누구의 지팡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8절에서 찾게 해 주세요. 생명 없는 막대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일이 왜 특별한 일인지 상상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에 대해 나누어 보세요.

□ 인도자를 위한 해설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고 영향력을 갖게 되자 어떤 이들은 권력에 욕심을 품었어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도전해 반역을 주동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어요. 이에 하나님은 남은 백성이 원망을 일삼다가 죽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셨어요. 생명 없는 지팡이에서 생명이 움트는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리셨지요. 아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어요.

2) 내가 올바른 길로 행하도록 하나님이 내 위에 세워 주신 지도자는 누구인가요? 지도자에게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 저학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우신 지도자는 누구인가요?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유아·유치

이번 주일에 주일 학교 선생님과 전도사님(목사님)에게 "사랑해요!"라고 말하며 안아 드려요.

□ 질문 가이드

내 삶에 하나님이 세워 주신 지도자(권위)는 누구인지 나누어 보세요. 교회 선생님이나 교역자일 수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학교나 일터 등에서 만나는 선생님이나 리더일 수도 있어요. 그들의 인도와 가르침을 따라야 할 이유를 생각해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왜 유익한지 나누어 보세요. 권위에 순종하기 어렵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자유롭게 나누어 보세요.

□ 인도자를 위한 해설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순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해요. 나의 사사로운 감정과 의견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바라보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워 일하신다는 것,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지도자를 세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아는 것이 많다고, 가진 것이 많다고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도자를 택해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롬 13:1~2). 가정, 교회, 학교, 일터, 사회 등 내가 속한 곳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있어요. 그 지도자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유익과 나의 유익,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길 바라요.

≡ 5. 감사하기

우리에게 지도자를 세워 주시고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

≡ 6. 기도

하나님, 지도자를 세워 주셔서 교회·학교·일터 등에서 공동체가 질서 있게 움직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지도자를 바라보고 존중하며 따름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세요.

-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